

본당 소식

2024년 3월 생활말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 ♣ 유럽 한인 제4기 꾸르실료 학교
- 일시: 2024년 3월 14일(목)~17(주일)
- 유정연 리타, 윤지영 베레나, 허희숙 마리아 자매님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 기도 있습니다.
- 금요일 오후 8시, 오라토리오

- ♣ 지난 주 성가대 음악회 개최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음악회 기금액: 353,00€

-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이준서 다니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6.20€, 100,0\$
· 교무금 100,00€

전례 성가

입당 : 124 (은혜로운 회계의 때 2절)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68 (오묘한 성체), 160 (하느님의 어린양)
파견 : 281 (성 요셉)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일)	다음 주일(17일)
1독서: 이준서 다니엘 2독서: 최민욱 베로니카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1독서: 정명용 미카엘 2독서: 정지원 클라라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용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2024년 3월 10일 (자) 사순 제4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1독서 (역대기 하권 36,14-16.19-23)

그 무렵 14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15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19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20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1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일흔 해를 채울 것이다.” 22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일년이였다. 주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23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4-10)

형제 여러분, 4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5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6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7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9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3,14-2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좇으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3.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살피 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